**시진핑 시기 북중관계**

**청샤오허(成曉河) 중국인민대학교 전략연구센터 부주임**

**1. 현재의 북중 관계**

북한이 세 번째 핵 실험을 단행한 이래, 북중관계에 확실히 일정한 변화가 생겼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었다. 다음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몇 가지 관찰 근거들이다. 우선, 2013년 7월 리위엔차오의 북한 방문 이후, 양국 간 고위급 인사 방문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둘째, 북중 관계에 대한 대중 매체의 보도의 빈도수가 확실히 감소하였다.

셋째, 북중 간 경제 교류를 촉진하는 추동력이 사라졌다.

이러한 징후들을 통해 북중 관계가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북중 관계에 있어 실질적인 변화가 있다고 보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 간 무역은 그 발전 속도가 완만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중단할 생각도 없다. 둘째, 북한과 중국은 서로 간에 존재하는 의견 상에 있어서의 불일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한바가 없다. 셋째, 양국의 지도자는 공식적으로는 계속해서 양국 우호 관계 강화를 주문하고 있으며, 이것은 다음을 의미한다. 즉, 양국 어느 누구도 서로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넷째, 동북아의 지정학적 구도 변화가 아직은 북한과 중국 그 어느 누구도 우호적으로 느끼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과 그것이 북중관계에 미치는 영향**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은 북중관계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쳤다. 우선, 시진핑의 방문 국가 순서에 있어 한국을 북한보다 우선적 지위에 위치시킨 것은, 북중관계를 정상국가화 시키려는 중국의 노력이 반영되어 있다.

둘째, 비록 시진핑 주석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동성명에서 핵문제 있어 북한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중국과 한국의 고위급 지도자들 간의 빈번하고도 제도화된 상호 방문은 아직 시진핑을 만난 적이 없는 북한의 젊은 지도자인 김정은에게 압력으로 작용했다.

셋째, 시진핑의 한국 방문은 한중관계를 강화했고, 그 반대급부로 북한은 악화된 북중관계를 재건해야 하는 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넷째, 시진핑의 한국 방문은 중국이 북한을 상대하는 데 있어 전략적 레버리지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북한은 최고 지도자들의 중국 방문, 또는 향후 일본, 한국, 미국과도 관계를 개선을 모색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다.

**3. 북한 건국 66주년 기념행사에 중국의 3대 지도자가 보낸 축하 메시지 의미 해석**

2014년 9월에 중국의 정치국 상무위원인 시진핑, 장더장, 그리고 위정셩은 북한의 건국 66주년 행사에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이 조치는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북중관계는 현재 악화된 상태에 있다. 이에 중국의 대중매체는 2008년 후진타오, 우방궈, 원자바오가 북한 건국 60주년 행사에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보도 이후, 중국의 3대 지도자가 북한 건국 기념행사에 축하 메시지 전달에 관한 보도를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중국 대중매체의 태도는 북한 대중매체의 행동과는 반대되는 것이었다. 이는 중국 지도자들이 적어도 겉으로 만큼은 북한에 대해서 호의적 태도를 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것은 그간 북중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2008년에 후진타오, 우방궈, 원자바오가 북한 건국 기념일에 보냈던 메시지와 비교하였을 때, 이번에 시진핑, 장더장, 그리고 위정셩이 북한 건국 기념일에 보낸 메시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변화를 보였다. 여기에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처음으로 메시지 상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라는 북한 최고 지도자들의 개별 이름들이 명시적으로 생략되었고, 메시지 내용은 조선인민공화국과 조선로동당의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명분에 대한 서술에 집중했다. 이것은 다음을 의미한다. 곧 중국이 북한에서 행해지고 있는 개인숭배를 찬성하고 있지 않다는 것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이름을 한꺼번에 표기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것이다. 이 메시지는 후진타오 시대 중국의 대북정책의 기초를 구성했던 16자 지도방침 (继承传统、面向未来、睦邻友好、加强合作 - ‘전통을 계승하고 미래를 지향하며, 선린우호관계를 형성하고, 협력을 강화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지도방침의 생략은 중국 지도부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그것은 북중 간 전통적 우호관계는 바람직한 형태로 계승되지 못했으며, 양국 간 협력은 실질적으로 좋은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북중관계의 미래는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메시지에 있어서 이러한 변화를 줌으로써 중국은 북중관계의 정상국가화에 발걸음을 한 단계 더 내디뎠다. 중국 지도부의 메시지는 분명하였고, 메시지 상의 변화는 중대하다.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은 이에 대해 불쾌하게 여길 수도 있다. 메시지 상에 있어서의 이러한 변화는 북한의 젊은 지도자인 김정은에게 또 다른 압력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4. 북중관계의 미래**

이제 북한이 선택해야 될 때이다. 김정은은 북중관계 운영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과 이익은 무엇인지에 대해 신중한 계산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의 협상 카드는 얼마 되지 않는다. 북중 관계를 잘못 다룬다면 북한의 미래에 재앙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